

# 심리학과 뉴스레터

| 2025년 하반기 제 4호 |



## 학부소식

### | 2025학년도 1학기 '교수님과 식사'



2025년 5월 9일, 비가 내리던 날에 두레미담 두레룸에서 '교수님과 식사'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안우영 교수님, 최진영 교수님, 김향숙 교수님, 그리고 새롭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합류하신 신임 교수 이해연 교수님께서 참여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학부생들은 교수님과 함께 관심 있는 심리학 분야와 여러 진로 관련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학문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총 28명의 학부생이 참여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 학부생은 "전공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 2025 심리학과 24, 25학번 연합 MT



2025년 6월 20일, 신림의 한 파티룸에서 알반의 24학번과 25학번의 연합 엠티가 열렸다. 1학기를 마무리한 기쁨과 함께, 24학번과 25학번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맛있는 음식과 과대들의 주도로 진행된 흥미진진한 레크레이션, 넘치는 흥과 뛰어난 보컬 실력을 자랑한 노래 시간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엠티였다. 한 참가자는 "두 학번이 함께해 두 배로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하루였다."라고 말하며 다음 엠티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 2025학년도 총 MT



2025년 6월 28일~6월 29일, 가평 써니힐펜션에서 2025 심리학과 총 MT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김향숙 교수님, 이해연 교수님, 안우영 교수님, 박상민 조교님, 이신규 조교님, 그리고 34

명의 심리학과 학부생이 참여하였다. 행사는 크게 레크레이션과 바비큐 파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레크레이션 1부에서는 윗놀이, 2부에서는 미션 보드게임이 진행되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부상자 한 명 없이 이틀에 걸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 학부생은 "처음 MT에 참여했는데 기대한 만큼 재밌는 시간이었다,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 | 2025 심리학과 24학번 MT



2025년 8월 22일, 심리학과 24학번들이 모여 인천 을왕리로 엠티를 떠났다. 설렘을 안고 도착한 펜션에 서둘러 짐을 풀고, 해수욕장으로 달려가 시원한 바다를 만끽했다. 맛있는

저녁에 더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과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엠티를 즐겼다. 한 참가자는 "너무나 편안한 시간였고, 멋진 바다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학부소식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총회



2025년 9월 3일, 2025학년도 심리학과 개강총회가 열렸다. 이번 개강총회에서는 25학번 2학기 남녀 과대 선출과 심리/일반 학생회칙 8차 개정안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학생회칙 8차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자치회와 학생회의 통합을 위한 회칙 수정이었다. 학생회와 자치회의 불필요한 인원 분배와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회칙 수정은 31명의 찬성표와 2표의 기권표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외에도 심리/일반 1학기 운영위원회 보고, 집행부 보고 및 2학기 학생회 사업 계획과 예산 계획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개강총회 이후, 뒷풀이는 학생회비 지원을 받아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식당 '일점사'에서 진행되었다.

2025학년도 2학기 '심리인의 날'



2025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 버들골에서 '심리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여러 미니게임과 심리학 상식 퀴즈, 보물찾기와 심리학과 로고 만들기 등의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김향숙 교수님, 석혜원 교수님, 그리고 학부생 29명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심리학과 주/복/부전공생의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었다. 1등 팀을 정하기 위한 치열한 승부 끝에 최종적으로 2팀이 우승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학원소식

2025학년도 2학기 심리학과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지난 9월 19일, 2025학년도 2학기 심리학과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김가원 대학원 주임교수의 대학원 소개 및 환영 인사로 시작되어, 오주원 대학원 담당 조교의 교과목 이수 및 학위논문 준비 과정 설명, 알포인트 주관리자 이인주 박사과정생의 연구참여시스템 소개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의 온보딩을 돕기 위하여 학과 구성 및 졸업필요 조건(이수학점 수료, 논문계획안 발표, 학위논문 준비)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학원 주임 김가원 교수와 담당 오주원 조교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신입생들이 대학원에 발을 들이고 난 뒤 오래 가지게 되는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큰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성실히 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마음을 전하였다.

대학원소식

대학원 걷기 나들이 행사 SNU Psychology Human-Love Walk



2025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는 걷기 나들이 행사, 'SNU Psychology Human-Love Walk'를 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하였다. 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단체 티셔츠를 입고 팀별로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산책을 마친 뒤에는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연구실을 넘어선 교류의 장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심리학과 대학원 주임 김가원 교수와 자원하여 구성된 준비위원회(권이준, 박서현, 안준호, 오세린, 이주혜, 임한나, 장예리, 장준우, 조유솜), 그리고 오주원 조교가 준비를 함께하였다. 김가원 교수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 연구를 하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번에 함께 걷고 대화하며 서로에게 인간적 관심을 가지고 동료애를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준비위원회장을 맡은 임한나 석사과정생은 "건물 안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실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적 학문 교류와 발전을 위한 외부평가 실시



최근 심리학은 인공지능(AI), 뇌과학, 데이터과학 등 여러 학문과 긴밀히 연결되며 현대 과학의 중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노벨상 수상자인 Geoffrey Hinton (물리학상, 심리학 학사)과 Demis Hassabis (화학상, 인지신경과학 박사) 역시 심리학적 배경과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들이다. 이러한 흐름은 심리학이 AI와 깊게 맞닿아 있는 첨단 융합 학문이자,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분야임을 보여준다.

서울대 심리학과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문적 정체성과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학과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학과 외부평가(External Review)를 추진했다. 이번 평가는 심리학과가 서울대학교 외부평가 사업에 지원하고 선정되어 시작되었으며, 구성원들의 학문적 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강렬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온 결과이다. 이를 통해 학과는 학과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 체계를 향한 새로운 전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위원단에는 Marvin M. Chun 교수님(예일대학교), 이대열 교수님(존스홉킨스대학교), William P. Hetrick 교수님(인디애나대학교), Mark A. Pitt 교수님(오하이오주립대학교), 김학진 교수님(고려대학교), 송현주 교수님(연세대학교)이 함께 했다. 특히 Chun 교수님과 이대열 교수님은 모두 호암상 수상자로, 이번 평가의 학문적 깊이와 상징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이틀간 이어진 평가 기간 동안 위원단은 교수진, 대학원생, 학부생 대표들을 만나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학과 현황 보고, 교수 간담회, 연구실 투어, 전공별 회의, 학생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 혁신과 협력 문화, 그리고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번 외부평가는 심리학과가 스스로의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심도 깊은 논의와 평가를 통해 학과는 향후 방향성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심리학계 속에서 한층 역동적이고 선도적인 도약을 준비하려 한다. 향후 공식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성과

**최진영 교수,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내 손 안의 뇌건강' 국책과제 참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가 참여한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내 손 안의 뇌건강 : 뇌 나이 및 인지예비능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과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 노화 서비스 개발」이 최종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뇌영상·인지검사·혈액·유전체·생활습관·생체 신호를 통합해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예측·예방 중심의 뇌 건강 디지털 서비스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 연구다.

최진영 교수는 인지예비능(Cognitive reserve; CR) 분야의 국내 선도 연구자로, 인지예비능 이론의 창시자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Yaakov Stern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인지예비능 모델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임상신경과학 연구실은 여러 코호트에 적용된 다양한 인지검사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인지예비능의 정량화 모델과 그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내 노인의 다차원적 멀티모달 지표를 활용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개인별 위험도 예측뿐 아니라 조기 개입, 맞춤형 관리, 디지털 치료 서비스로 이어지는 정밀의학 기반 뇌건강 관리(precision brain-health) 체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Brain Pool) 선정 & Jay I. Myung 교수 서울대 초빙**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세계적 인지심리학자인 Jay I. Myung (명인재) 교수가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개인유치형 과제를 통해 서울대 심리학과에 초빙 되었다(연구 책임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Brain Pool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이 직접 해외 석학을 영입하여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환경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전략 사업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에 고급 인재를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초빙을 통해 Myung 교수가 세계적으로 주도해온 베이지안 모델링, 최적화 이론, 자동화 실험 설계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국내 연구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Myung 교수는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및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APS) 펠로우로 선정된 바 있으며, 60편 이상의 SCI 논문과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Air Force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FOSR) 등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으로, 인지심리학·통계학·기계학습을 융합한 실험과학 방법론 연구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Myung 교수는 서울대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2년 2개월동안 차세대 자율 실험(autonomous experimentation) 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두 교수간의 기존 협력 연구를 기반으로 안우영 교수가 NIH 산하의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에서 R01 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2023-2028), 이 Brain Pool 과제는 베이지안 통계와 최신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최적의 실험 디자인을 설계·선택하는 차세대 자율 실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AI 발전과 함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분야에서, Myung 교수의 이론적·계산적 전문성은 연구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발되는 차세대 자율 실험 기술은 중증 환자의 인지·의사결정 특성 평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정밀의학 기반 정신건강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Brain Pool 초빙을 통해, 세계적 석학과 국내 연구진이 함께 차세대 실험 과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 공동연구의 폭을 넓히고, AI 기반 실험과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

**인간공학심리연구실,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해외) 사업선정**

인간공학심리 연구실은 2025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해외)'에 선정되었다(연구책임자: 한소원 교수). 본 과제에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Jonathan Gratch 교수와 이윤경 박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연구팀은 향후 3년간 「한국형 스마트에이징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모델 개발(Development of a Social Competence Enhancement Model for Korean Smart-Aging)」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에이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 기반 사회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tive Aging HAI 센터 특별 공개강연 개최**

Active Aging HAI 센터는 2025년, 신체 활동과 정서·인지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두 차례의 국제 석학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Art Kramer 교수 특별 강연 - 신체 활동과 인지 및 뇌 건강**

10월 16일 Art Kramer 교수가 신체 활동이 인지 및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본 강연은 Active Aging HAI Center가 주최한 첫 번째 공개 웨비나다. Art Kramer 교수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Beckman Institute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전 소장이며,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연에서 Kramer 교수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수행한 운동 훈련 개입과 신체 활동 참여가 인지 기능 및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Jonathan Gratch 교수 강연 시리즈 - Affective Computing**

11월 10일부터 4일간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Jonathan Gratch 교수가 Affective Computing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본 강연은 Active Aging HAI Center가 주최한 두 번째 공개 강연으로, Gratch 교수는 감정 인식·합성, 인지·정서 모델링,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 설계 등 컴퓨터공학적 기법을 심리학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강연에는 심리학과, 뇌인지과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융합적 연구 설계 및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연들은 Active Aging HAI 센터가 지향하는 융합적 연구와 학제 간 교류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향후 센터의 연구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확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ctive Aging HAI 센터 출범, AI and Active Aging Conference 개최**

인간공학심리연구실 한소원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Active Aging HAI 센터가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의 선도혁신센터로 선정되었다. 센터에는 심리학과 김가원 교수, 이해연 교수를 비롯해 사회학과, 체육교육학과, 의류학과, 산업공학과, 언론정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진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센터는 AI and Active Aging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심리과학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독립성 유지와 사회적 연결 등 Active Aging의 핵심 과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컨퍼런스에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Oklahoma Tulsa, KAIST 등 국내외 대학의 심리학·컴퓨터공학·재활학·노년학·로봇공학 분야 석학들이 참여하여, 고령화 사회의 주요 이슈와 AI 기반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Active Aging HAI 센터는 앞으로도 Active Aging과 그 과정에서 Human-AI Interaction의 역할을 중심으로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성과

### 사회학습발달연구실 국립어린이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및 「어린이의 마음」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지난 9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와 전시·연구 및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와 가족의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고, 심리학 연구 성과를 현장 교육 및 커뮤니티 기반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가족의 정서 및 심리 증진을 위한 전시·연구, 심리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문, 인력·지식 교류와 공동 연구의 기반 마련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의 실제 문제를 탐색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경험적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과 더불어, 지난 11월 3일에는 「어린이의 마음, 뮤지엄과 만나는 법」을 주제로 국립어린이박물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박물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술·문화적 경험을 통해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 민간 뮤지엄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의 실천적 전시·교육 프로그램이 공유되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올해 가을 개관 예정인 기획전시에서 「어린이의 마음과 정서 발달」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 교수로 서울대 심리학과 이해연 교수를 초청하였다.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이해연 교수는 「아이들 마음의 숲에서 나누는 대화」를 주제로 아동 발달과 정서, 놀이의 심리적 의미를 설명하며, “작은 실패에도 다시 시도해 보는 경험이 회복탄력성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과 심포지엄은 심리학 연구가 지역 커뮤니티의 전시·교육 실천과 연결되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아동과 가족의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연구가 일상 속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 연구 소개: 아동의 뇌는 유전자가 설계하는가?

대규모 유전체-뇌영상 연구가 유전·뇌·행동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드러냈다.

서울대학교 차지욱 교수 연구팀과 성균관대학교 주윤정 교수가 Nature Communications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대규모 아동 뇌 발달 데이터(ABCD, 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를 활용해, 9-10세 아동 8,620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유전자, 뇌 구조와 기능, 그리고 행동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유전적 위험이 어떻게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발견은 뇌 구조가 유전적 영향에, 뇌 기능은 환경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차별적 민감성'의 가능성이다. 회복질 부피, 피질 두께, 백질 연결성과 같은 구조적 지표는 유전적 영향에 비교적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지능력이 높은 유전적 경향을 가진 아동일수록 회복질 용적이 크고 전전두엽-피질하 연결이 강했다. 반면, ADHD나 우울증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아동은 이와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기능적 지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휴지기나 과제 수행 중의 뇌 활성화는 유전자보다 가족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더 민감했다. 이는 뇌 구조가 유전의 청사진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뇌 기능은 일상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개입 전략은 구조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구분하여 접근할 때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아동기 뇌 발달의 고유한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기의 회복질은 성인보다 높은 유전율을 보였는데(약 23%), 이는 시냅스 가지치기와 수축화 등 주요 발달 과정이 유전적으로 강하게 조율되는 시기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대상의 뇌 연구 데이터를 아동에게 단순히 적용하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아동 발달에 대한 별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이번 연구는 미국 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팀은 “미국 아동의 뇌 발달 패턴이 유전적, 환경적 배경이 다른 한국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심화되는 아동 정신건강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1만 명 규모의 한국형 아동 뇌발달 코호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동기 뇌의 유전적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내딛었다. 그러나 그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는 아직 우리의 몫이다.

참고문헌

Joo, Y. Y., Kim, B. G., Kim, G., et al. (2025). Polygenic architecture of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behaviors, and psychopathologies in children. Nature Communications, 16, Article 8467.

<https://doi.org/10.1038/s41467-025-63312-6>

연구성과

### David Yeager 교수 특별강연: 청소년의 동기·성장을 위한 심리과학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지난 11월 5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David Yeager 교수와 성균관대학교의 박다운 교수를 초청하여 “Empowering Young Minds in a Transforming World”를 주제로 해외 석학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본 강연은 심리학특강의 일부로, 심리과학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행복연구센터 파트너 교사, UNICEF 한국위원회, 아산나눔재단 등 교육·복지 분야의 파트너들이 참여해 청소년 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을 함께 논의하였다.

Yeager 교수는 미국 전역의 대규모 필드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동기와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장 마인드셋 연구를 확장한 ‘멘토 마인드셋(mentor mindset)’을 소개하며, 교사·부모가 전달하는 존중과 기대, 소속감의 메시지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 스트레스 반응, 교실 문화에 실제 변화를 만든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박다운 교수는 한국 아동·청소년 연구를 바탕으로 정서적 인정(emotional validation)이 정서 조절, 신뢰, 과제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소개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문제로 보기보다 성장의 신호로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인의 역할이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특별강연은 발달·동기·사회정서 심리학의 최신 연구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심리과학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심리학과는 이를 계기로 국내외 연구자 및 현장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최인철 교수, SESP 2025 Scientific Impact Award 및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2025년 Society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SESP)가 수여하는 Scientific Impact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상은 매해 당해 기준 지난 25년간 발표된 사회·성격심리학 논문 중 가장 큰 학문적 영향을 미친 연구를 선정해 수여하는, 분야 내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이다.

수상 논문은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로, 동서양의 사고 체계 차이가 사회 구조·형이상학적 세계관·암묵적 인식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혁신적 관점을 제시하며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이라 간주되던 인지 과정에 대한 기존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누적 인용 횟수가 7,000회를 돌파할 만큼 국제 학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아 온 사회심리학의 대표적 고전이다. 이번 수상은 최 교수와 공동 저자들의 연구가 전 세계 학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적 파급력을 발휘해 왔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한편, 최인철 교수는 같은 해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 부문)을 추가로 수상하였다. 해당 상은 서울대 소속 교원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교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상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최 교수는 2008년 학술연구교육상(교육 부문)을 이미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을 통해 서울대 교육상과 연구상을 모두 받은 네 번째 교수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수상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어온 최 교수의 꾸준한 연구 성과와 국제적 학술 영향력뿐 아니라, 후학 양성을 위한 헌신적인 교육적 기여가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두 수상은 최인철 교수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연구 성과와 교육적 기여가 다양한 차원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계 내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성과

**계산임상 연구실 이은희, 한국심리학회 박사과정 콜로키움 최우수상 수상**

계산임상연구실(지도교수 안우영)의 이은희 박사과정생이 “니코틴 금연에서 파블로비안 편향의 역할 및 금단 중 그 인지신경학적 변화(The Role of Pavlovian Bias in Smoking Cessation and Neurocognitive Alterations During Nicotine Withdrawal)” 연구로 2025 한국심리학회 박사과정 콜로키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금연 과정에서 파블로비안 편향이 목표지향적 금연 행동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임을 계산모델링과 fMRI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금연 후 파블로비안 편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에서 재발의 루프를 설명하는 인지신경학적 기전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편향의 정도가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vmPFC)의 가치표상 저하와 관련됨을 보여, 약물 사용군에서 나타나는 보상 부호화 왜곡을 뇌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강화학습 기반 계산정신의학 접근을 통해 중독의 인지신경학적 기전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향후 파블로비안 편향을 표적으로 하는 맞춤형 중재 개발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



**임상신경 연구실 곽현정, 2025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임상신경연구실(지도교수 최진영) 소속 곽현정 박사과정 연구원이 2025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 과제명은 「중단 추적 연구에 기반한 통합적인 인지노화 모델 탐색 : 뇌연령 및 신경염증을 중심으로」이며,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뇌 노화와 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그 속도와 양상에는 개인차가 크다. 임상신경연구실은 중단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인지에비능과 뇌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기반하여, 염증 기전을 통해 뇌 노화 및 인지노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이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통합적으로 탐색할 예정이다.

**조직심리 연구실 현승주,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우수학술 논문상(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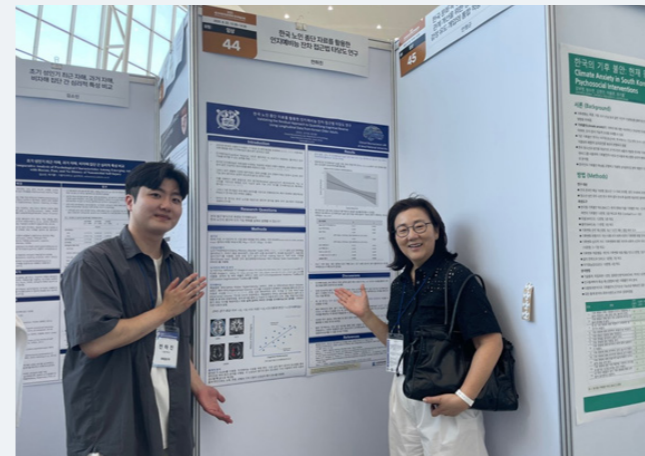
조직심리연구실(지도교수 김가원) 소속 현승주 박사과정 연구원이 2025년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학술포럼 우수 학술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승주 박사과정생은 '미래 직장에서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중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팔로워 생활로 가득 찬 1~2학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리더로 생각하는 생도들은 군사훈련 간 변혁적 리더십 행동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이 행동들이 훈련 간 팀원들로부터 높은 지위를 인정받게 하였다. 특히, 이러한 인정 경험은 2년 후 졸업 전 단계의 이들이 임관 후 가계 될 부대에 대한 리더십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는 팔로워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초기 경력 단계에서도 리더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리더십 개발 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 구조보다 비공식적인 지위 메커니즘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도는 조직의 자연적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십 개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

**임상신경 연구실 전하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미래 심리학자상 수상**



임상신경 연구실 전하진 석사과정생과 조지현 박사과정생 그리고 최진영 교수의 연구 “한국 노인 중단자료를 활용한 인지에비능 잔차접근법 타당도 연구”가 2025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미래심리학자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뇌의 구조적 병리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인 인지에비능을 잔차(Residual) 접근법으로 산출했을 때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잔차 접근법은 뇌 지표로 예측되는 인지 수준과 실제 인지 수행의 차이를 인지에비능으로 정의한다. 국내 정상 노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타당도 검증은 최초이며, 향후 치매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인지에비능 측정의 기초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기억인지 연구실 강원준, 한국계산뇌과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

기억인지연구실(책임교수 이수현) 강원준 연수연구원(현 의학연구원 신경과학연구소 소속)이 2025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 에서 “Map-like Representations of Social Relationship Dimensions in the Human Hippocampus” 라는 제목의 연구 발표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는 동연구팀에서 규명한 사회적 관계 인식의 핵심 두 차원, ‘우호-적대’와 ‘억제된 우호-억압적 적대’ 차원이 결합되어 해마에서 2차원 지도 형태로 통합적으로 처리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각 차원의 특이적 정보를 담당하는 두뇌 피질 영역으로부터 해마로 전달되어 통합됨을 보였다. 이는 해마가 사회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계산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유연하게 파악하기 위한 핵심 계산 허브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기억인지 연구실 박지수, 한국뇌신경과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기억인지연구실(지도교수 이수현) 소속 박지수 박사과정 연구원이 2025년 8월에 개최된 제 28회 한국뇌신경과학회(KSBNBS)에서 “Temporally dynamic prefrontal processing during goal-dependent memory retrieval”이라는 제목의 연구성과로 Outstanding Poster Presentation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목표에 따라 기억을 인출할 때 배외측전전두엽에서 정보처리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보였다. 초기 인출 단계에서는 지각 시와 유사하면서도 일시적인 정보처리가 나타난 반면, 후기 단계에서는 초기에서의 지각 유사 패턴과 뚜렷하게 구분되며 목표에 특이적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억 인출이 단일 과정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처리 단계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목표 지향적 기억 조절의 신경 기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성과

커넥트연구실박정훈학생  
IEEEQCE2025  
BestPaperAward 수상

서울대학교 차지욱 교수 연구팀 소속 박정훈 학생은 202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ntum Computing and Engineering(IEEE QCE 2025)에서 「Resting-state fMRI Analysis using Quantum Time-series Transformer」 논문으로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휴지기 fMRI 시계열 분석에 양자 컴퓨팅 개념을 도입한 Quantum Time-series Transformer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 분석 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뇌 신호의 구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해당 연구는 양자 컴퓨팅과 뇌영상 분석의 접점을 제시한 점에서 학문적 독창성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본 학회 최고 논문상으로 선정되었다.



차지욱 교수, ARPA-H Korea  
연구과제 선정

서울대학교 차지욱 교수 연구팀은 초고령사회 핵심 보건 난제인 치매 예방을 목표로 하는 ARPA-H Korea 연구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조선대학교와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뇌영상·뇌파·유전체 등 멀티모달 생체 데이터를 거대 언어 모델과 통합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치매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돌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추적 코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증상 단계에서의 인지 변화와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해석 가능한 AI 기반 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본 과제는 뇌인지과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치매 예방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보건의로 현장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제2차 미래심리학자상,  
김보겸 연구원 선정



심리과학연구소는 미래심리학 분야의 성장을 이끌 우수한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미래심리학자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차 수상자 선정에 이어 진행된 이번 제2차 공모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계획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2025년 제2차 미래심리학자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수상자로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김보겸 연구원이 선정되었다.

김보겸 연구원은 「자연주의적 환경에서 감정의 시간적 역학 신경 표상 규명 및 정신장애 조기 예측」 연구를 통해, 영화 시청과 같이 실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자연주의적 상황에서 감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뇌 수준에서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GLM 기반 분석이 포착하기 어려웠던 감정의 시간적 구조(rise-peak-decay)를 밝히기 위해, Transformer 기반 SwiFT IO 모델 등 최신 딥러닝 기법을 도입하여 감정의 역동적 신경 표상을 탐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시각·청각·언어 정보를 통합한 다중모달 신경표상을 구축함으로써, ASD, ADHD, 사회불안, 우울 등 주요 정신장애와 관련된 개인차 패턴을 규명하고 조기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주의적 뇌영상 분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신장애의 조기 진단과 개인맞춤형 중재 전략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과학연구소는 김보겸 연구원의 연구가 국내외 자연주의적 뇌영상 연구 및 정신장애 예측 연구의 발전에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성과

이수현 교수 연구팀,  
초감각형태 작업기억 존재 규명

이수현 교수 연구팀(기억인지연구실, 제 1저자 박도영 연수연구원)은 인간의 뇌에서 작업기억이 초감각형태(supramodal)로 존재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작업기억은 행동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잠시 유지하여 우리가 목적에 따라 계획하고 행동하며 복잡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각 또는 촉각 등 인식하는 감각의 양식에 따라 작업기억 정보가 해당 감각피질에서 유지됨을 보여주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각 양식에 의존적인 작업기억 유지 뿐 아니라 감각양식에 상관없이 초감각형태로 유지되는 상위 수준의 작업기억 유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시각 및 촉각 자극을 모두 이용한 기능적자기공명뇌영상(fMRI) 실험을 통해, 초감각형태 작업기억이 주로 상두정피질(superior parietal cortex)에서 유지됨을 밝힌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하두정피질(inferior parietal cortex)에서는 시각과 촉각을 연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정보가 유지되는 새로운 형태의 작업기억을 추가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기억이 유지되는 새로운 상위 수준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뇌에서 작업기억이 처리되는 원리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2025년 5월 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참고문헌

Park, D., Hwang, S. H., Lee, K., Ryoo, Y., Kim, H. F., & Lee, S. H. (2025). Supramodal and cross-modal representations of working memory in higher-order cortex. Nature Communications, 16(1), 4497.

이수현 교수 연구팀,  
뇌에서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는  
두가지 핵심 차원 규명

이수현 교수 연구팀(기억인지연구실, 제 1저자 강원준 연수연구원)은 자연적 영상 자극과 정교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 인식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차원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때 '우호 대 적대' 차원과 '억제된 우호 대 억압적 적대' 차원이 핵심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는 기존 사회적 관계 인식 이론에서 주로 제안되어 온 두 가지 차원이 혼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연구진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 인식의 두 차원이 뇌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즉, 첫 번째 차원은 후방상측두정피질(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 네트워크에서, 두 번째 차원은 복내측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 네트워크에서 주로 처리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뇌에서 공통된 두 핵심 차원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밝히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 성과는 2025년 8월 국제 학술지 Communications Biology에 게재되었다.

Kang, W., Kwon, M., & Lee, S. H. (2025). Neural systems for processing social relationship information along two principal dimensions. Communications biology, 8(1), 1120.



교수소식

신임교수 인사



석혜원 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2025년 2학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계량심리 전공 교수로 새로 부임한 석혜원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심리학과 동문 선배님들,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석사 과정에서 김청택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계량심리학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캐나다 McGill University 심리학과에서 Heungsun Hwang 교수님의 지도 하에 계량심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친 뒤에는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심리학과에서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귀국하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와 교육을 이어오다, 올 가을 모교인 이곳 서울대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계량심리학자입니다.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이 과학적이고 타당한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마음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저의 목표는 더 나은 방법론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심리학 연구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보다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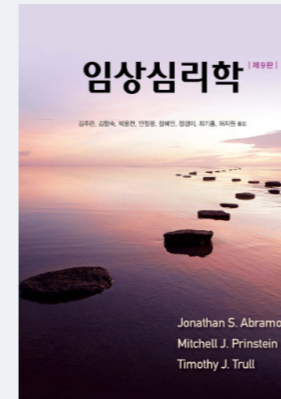
지금까지 저는 심리학 연구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며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얻는 함수형 자료(functional data)나 집중 종단 자료(intensive longitudinal data)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저는 개인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 즉, 개인 내 '변동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기록한 만성 통증 데이터를 통해 통증 변화 패턴을 분석하거나,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수면 데이터에서 수면의 평균적인 질보다 수면 패턴의 변동성이 우울이나 불안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변동성 분석에서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석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사회대 M동 연구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교수님, 그리고 선배 대학원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연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때로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고, 그때의 인연들, 그리고 그때 주고받았던 수많은 대화와 고민들은 이후 제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캠퍼스의 모습도, 연구 환경도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며 얻는 경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과 학생 여러분도 이곳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귀중한 경험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여정에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과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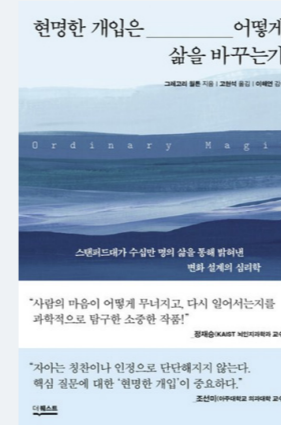
임상심리학 9판



- 역자 : 김주은, 김향숙, 박용천, 안정광, 장혜인, 정경미, 최기홍, 허지원공역
- 저자 : Abramowitz, J.S., Prinstein, M.J., & Trull, T.J.
- 시그마프레스(2025년 8월 20일)

이 책은 임상심리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교재로, 임상가이자 연구자 겸 교육자인 저자들이 임상심리학의 과학과 실무를 소개한다. 임상적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전 생애 발달 접근을 반영하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다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 기반 관점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러한 요인이 임상심리학 분야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고 있다. 또한 DSM-5-TR 관련 최신 내용을 반영했다.

현명한 개입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 감수 : 이해연
- 저자 : Gregory M. Walton
- 번역 : 고현석
- 더퀘스트 (2025년 7월 31일)

그레고리 월튼의 '현명한 개입' 연구는 이미 수많은 종단 연구와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교육·조직·대인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이 개입 전략들은 미국 전역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소속감, 관계의 질, 성취를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한국어판에는 서울대학교 이해연 교수의 치밀한 감수가 더해져, 독자들이 최신 심리학 연구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제 이 책을 마주한 여러분도 더 깊이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고, 일상의 현명한 개입을 시작하는 '전환의 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그 과정이 다시 필연적 관성에 부딪힐 때, 이 책은 다시금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세심한 안내서로 함께 할 것이다."

— 이해연, 감수의 글 중

## 학술대회 발표목록

### |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성과

2025년 하반기,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은 국내외 유수의 학술대회에서 약 49편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생물심리와 신경과학부터 사회심리, 조직 심리, 인지심리, 임상심리, 계량심리까지 다양한 심리학 분야를 아우르며, 이론과 실전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창의적인 연구 주제는 심리학의 미래와 그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 성과]

| 번호 | 발표<br>저자 | 지도<br>교수 | 발표<br>년월 | 발표제목<br>(학술대회명)   |
|----|----------|----------|----------|---|
| 1  | 현승주      | 김가원      | 2025.08  | Does thinking of myself as a leader make me confident in future leadership?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leadership self-efficacy development among military cadets (2025 제 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2  | 구지현      | 김가원      | 2025.08  | Strategic or Sincere? How Fear of Negative Evaluation Manifests in Divergent Self-Presentation through Interview Anxiety (2025 제 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3  | 목정후      | 김향숙      | 2025.10. | Predicting Changes in Suicidal Ideation Among Nurses and Teachers: The Longitudinal Role of Emotion Regulation and Job-Related Variables (한국임상심리학회 2025 가을학술대회)                                 |
| 4  | 이지선      | 김향숙      | 2025.10. |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대처 유연성이 번아웃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2025 가을학술대회)   |
| 5  | 송민해      | 박주용      | 2025.06  | Evaluating others versus being evaluated: Which one enhances learning more?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Sciences and Educational Innovation.)                                 |
| 6  | 송민해      | 박주용      | 2025.07  | Enhancing learning effect of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individual preparation with peer feedback (The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en and Innovative Education)                      |
| 7  | 권선린      | 박주용      | 2025.08  | 팀 기반 학습에서 동료평가가 평가타당도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중·초등사례를 중심으로 (2025 제 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8  | 이동원      | 안우영      | 2025.07  | Forecasting Alcohol Craving via Smartphone-Based Multimodal Data: A Hierarchical Bayesian Machine Learning Approach (2025 한국계산뇌과학회)   |
| 9  | 정채윤      | 안우영      | 2025.07  | Investigating real-time decision making under stochastic environment in a naturalistic driving task using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2025 한국계산뇌과학회)  |
| 10 | 이정현      | 안우영      | 2025.09  | Distinct computational markers of reward learning in anxiety and depression (2025 Computational Psychiatry Course)  |
| 11 | 신정연      | 안우영      | 2025.09  | Developing Rapid and Reliable Behavioral Paradigms Using Adaptive Design Optimization (2025 Computational Psychiatry Course)  |
| 12 | 이은휘      | 안우영      | 2025.08  | The Role of Pavlovian Bias in Smoking Cessation and Neurocognitive Alterations During Nicotine Withdrawal (2025 제 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13 | 이은휘      | 안우영      | 2025.09  | The Role of Pavlovian Bias in Smoking Cessation and Neurocognitive Alterations During Nicotine Withdrawal (2025 Computational Psychiatry Course)  |

####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성과]

| 번호 | 발표<br>저자 | 지도<br>교수 | 발표<br>년월 | 발표제목<br>(학술대회명)   |
|----|----------|----------|----------|---|
| 14 | 임주연      | 안우영      | 2025.09  | Cardiac and Respiratory Interoception among Smokers: Preliminary Results (2025 Computational Psychiatry Course)   |
| 15 | 안우영      | 안우영      | 2025.09  | Reinforcement Learning (2025 Computational Psychiatry Course)   |
| 16 | 이현민      | 안우영      | 2025.08  | A Naturalistic Decision-Making Task Revealing Differences in Explore-Exploit Trade-Offs in Addiction (2025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
| 17 | 정채윤      | 안우영      | 2025.08  | Real-Time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An IRL-Based Analysis of Naturalistic Driving Task (2025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
| 18 | 안우영      | 안우영      | 2025.09  | Naturalistic Paradigms for Advancing the Understanding of Real-World Addictive Behaviors (2025 Society for Research in Psychopathology)   |
| 19 | 강정윤      | 안우영      | 2025.10. | 알콜 갈망 조절을 위한 계산 모델링적 접근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 20 | 이정현      | 안우영      | 2025.11  | Distinct computational markers of reward learning in anxiety and depression (2025 Society for Neuroscience)   |
| 21 | 이현민      | 안우영      | 2025.11  | Naturalistic Decision-Making Reveals Exploit Bias and Cost Insensitivity in Abstinent Smokers (2025 Society for Neuroscience)   |
| 22 | 정채윤      | 안우영      | 2025.11  |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stochasticity on real-time decision-making in a naturalistic driving task using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2025 Society for Neuroscience) |
| 23 | 박도영      | 이수현      | 2025.06  | Higher-order cortex maintains supramodal and cross-modal representations during working memory (2025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
| 24 | 신인호      | 이수현      | 2025.07  | Shared neural processes engaged during memory retrieval with self-distancing (2025 한국계산뇌과학회)  |
| 25 | 조수빈      | 이수현      | 2025.07  | Dynamic changes in prefrontal representations during associative learning related to long-term memory retention (2025 한국계산뇌과학회)   |
| 26 | 박지수      | 이수현      | 2025.07  | Temporal dynamics of prefrontal representations during goal-directed retrieval (2025 한국계산뇌과학회)  |
| 27 | 강원준      | 이수현      | 2025.07  | Map-like representations of social relationship dimensions in the human hippocampus (2025 한국계산뇌과학회)   |
| 28 | 신인호      | 이수현      | 2025.08  | Common neural processes engaged during memory retrieval under self-distancing (2025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
| 29 | 한재원      | 이수현      | 2025.08  | Neural representations of the clarity of subjective emotion (2025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

## 학술대회 발표목록

###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성과]

| 번호 | 발표<br>저자 | 지도<br>교수 | 발표<br>년월 | 발표제목<br>(학술대회명)   |
|----|----------|----------|----------|---|
| 30 | 박지수      | 이수현      | 2025.08  | Temporally dynamic prefrontal processing during goal-dependent memory retrieval (2025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
| 31 | 조수빈      | 이수현      | 2025.08  | Prefrontal representational changes during learning predict long-term associative memory (2025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
| 32 | 강원준      | 이수현      | 2025.08  | Map-like represent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human hippocampus (2025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
| 33 | 강원준      | 이수현      | 2025.11  | Hippocampal map-like representations of social recognition dimensions (2025 Society for Neuroscience)   |
| 34 | 이해연      | 이해연      | 2025.08  | 소셜미디어 경험이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이질적 발달 효과: 사회적 성취 동기를 중심으로 한 종단 및 실험연구 (2025 제 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35 | 부승현      | 이해연      | 2025.08  | 해리를 예측하는 성격 요인 탐색: 정체성 기능장애와 역기능적 공상을 중심으로 (2025 제 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36 | 민정윤      | 차지욱      | 2025.06  | Polygenic Risk and White Matter Improve Deep Learning Prediction of Youth Depression and Suicidality (2025 Organization of Human Brain Mapping)   |
| 37 | 한동엽      | 차지욱      | 2025.06  | DIVER-0 : A Fully Channel Equivariant EEG Foundation Mode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2025 Workshop on GenBio)   |
| 38 | 한동엽      | 차지욱      | 2025.06  | Enhancing psychiatric disorder diagnosis: integrating multilabel metadata with contrastive learning on T1 structural MRI (2025 Organization of Human Brain Mapping)                                 |
| 39 | 박마리아     | 차지욱      | 2025.08  | Enhancing OCD classification with Transformer-based deep learning on resting-state fMRI: insights from the ENIGMA-OCD cohort and UK Biobank pretraining (2025 Cognitive Computational Neuroscience) |
| 40 | 최주빈      | 차지욱      | 2025.08  | SwiFT V2: Towards Large-scale Foundation Model for Functional MRI (2025 Cognitive Computational Neuroscience)   |
| 41 | 이진우      | 차지욱      | 2025.08  | Trait depression predicts negatively biased encoding and retrieval of ambivalent movie: interoceptive and lexical analysis. (2025 Cognitive Computational Neuroscience)                             |
| 42 | 박정훈      | 차지욱      | 2025.09  | Resting-state fMRI Analysis using Quantum Time-series Transformer (202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ntum Computing and Engineering)   |

| 번호 | 발표<br>저자 | 지도<br>교수 | 발표<br>년월 | 발표제목<br>(학술대회명)   |
|----|----------|----------|----------|---|
| 43 | 박정훈      | 차지욱      | 2025.11  | It's-A-Me, Quantum Mario: Scalable Quantum Reinforcement Learning with Multi-Chip Ensembles (202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ntum Artificial Intelligence)                               |
| 44 | 서정우      | 차지욱      | 2025.12  | Scalable Diffusion Transformer for Conditional 4D fMRI Synthesis (2025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 45 | 최주빈      | 차지욱      | 2025.12  | NeuroMamba: A State-Space Foundation Model for Functional MRI (2025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 46 | 임채우      | 최인철      | 2026.02  | Seeing the Present as Future Memories (2026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 47 | 곽현정      | 최진영      | 2025.07  | What Matters More in Brain Aging associated within systemic Inflammation : Depression or Loneliness? (2025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
| 48 | 전하진      | 최진영      | 2025.08  | 한국 노인 종단자료를 활용한 인지예비능 잔차접근법 타당도 연구 (2025 제 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49 | 정서윤      | 최진영      | 2025.11  | Neural Pattern Signature of Theory of Mind Moderates Social Network Betweenness Centrality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A Multivariate Pattern Analysis (2025 Society for Neuroscience)        |
| 50 | 신민정      | 한소원      | 2025.08  | There Is No Such Thing as a Dumb Question," But There Are Good Ones." (The 47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
| 51 | 이인주      | 한소원      | 2025.08  | How Empathy Promotes Socially Adaptive Behaviors in Interpersonal Conflict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le of Intention Inference. (The 47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
| 52 | 이윤경      | 한소원      | 2025.08  | 공감형 AI : 동료 지원에서 LLM 에이전트 추론의 역할 (2025 제79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 53 | 이윤경      | 한소원      | 2025.10. | Empathic AI for Human-Robot Interaction: Designing Socially Appropriate Behaviors with Foundation Models (2025 Humanoids)   |
| 54 | 이윤경      | 한소원      | 2025.12  | Empathic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s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
| 55 | 오세린      | 한소원      | 2025.12  | Linking Dialogue Acts to Perceived Empathy in Human and LLM Peer Support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
| 56 | 안선우      | 한소원      | 2025.12  | Evaluating Large Language Models' Inference of Human Emotions and Cognitive Appraisals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

학술지

지난 2025년하반기 간 심리학과와 각 연구실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 리스트(apa)

Yoo, S. J., Kim, K., Ku, X., Hyun, S., & Ko, J. (2025). Gender-atypical male military leaders enhance followers' training performanc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6(3), 275-284. <https://doi.org/10.1037/men0000525>

Kim, J., Mok, C, Lee, J, Kim, H.S., & Jo, Y. (2025). Dialogue Systems for Emotional Support via Value Reinforcement. In Proceedings of the 63rd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ume 1: Long Papers), pages 28733-28766, Vienna, Austria.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현지원, 양채연, 석혜원, 김향숙(2025). 우울과 정서조절 유연성: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변산성과 맥락 민감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1(2), 295-317.

권선린, 김휘민, 박정연, & 박주용. (2025). 시간을 반영한 채점이 동형검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독해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37(3), 91-101.

권선린, & 박정연. (2025). 팀 기반 학습에서 동료평가의 타당도 분석. *교육공학연구*, 41(3), 959-986.

Song, M.H., Park, J., Lim, J., & Park,J. (In press). Improving feedback literacy through peer evaluatio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Song, M.H., Park, J., & Lim,J. (2025). Improving writing performance through peer assessment: Beyond academic level and initial writing skill,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 26(2), 195-217.

Song, M.H., Lim, J., Kim, H., & Park,J. (2025). The impact of hybrid methods on idea quantity, quality, and interaction, *Psychological Reports*. Online First.

Song, M.H., Lim, J., Kim, H., & Park,J. (2025). The effect of including computerized revision extent scores in grading on writing revisions in psychology courses, *Teaching of Psychology*. Online First.

임재서 (2025). ICAP 프레임워크를 통한 토론 준비 학습: 사전 자기주도학습이 토론 학습에 미치는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31(4), 1211-1228.

Lim, J., Yang, J. W., Song, M. H., & Park, J. (2025). Self-study and discussion promote students' science learning. *Science & Education*, 34(4), 2459-2477.

Lee, J.-H.\*, Lee, E.\*, Im, J. J., O'Doherty, J. P., & Ahn, W.-Y. (2025). Reinforcement learning and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ental disorders, *PsyArXiv*. [https://osf.io/s58jh\\_v1](https://osf.io/s58jh_v1)

Kim, K. Lee, J.-H. Ahn, W.-Y. Kim, H. Social stress enhances intuitive prosocial behavior in males while disrupting self-reward processing: Evidence from behavioral, computational, and neuroimaging studies, *Neuroimage*. <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25.121273>

Lee, J.-H., Lee, S. H., Yang, J., Kim, H., Pitt, M., Park, H., Joh, H. K., Konova, A., & Ahn, W.-Y. (2025). Rapid and Reliable Computational Markers for Predicting Daily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Treatment Outcomes, *PsyArXiv*. [https://osf.io/preprints/psyarxiv/bj7fd\\_v4](https://osf.io/preprints/psyarxiv/bj7fd_v4)

Kim, H., Psederska, E., Choi, J.-S., Vassileva, J., & Ahn, W.-Y. (2025). Computational risk profiles of impulsive decision-making for substance use disorde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imulants and opioids, *PsyArXiv*. [https://osf.io/preprints/psyarxiv/6xw2j\\_v1](https://osf.io/preprints/psyarxiv/6xw2j_v1)

Haines, N., Kvam, P. D., Irving, L., Smith, C. T., Beauchaine, T. P., Pitt, M. A., ... & Turner, B. M. (2025). A tutorial on using generative models to advance psychological science: Lessons from the reliability paradox. *Psychological Methods*.

Im, J., So, E., Kim, K., & Ahn, W.-Y. (2025). A Systematic Review of Interoception in Substance Use Disorders, *PsyArXiv*. [https://doi.org/10.31234/osf.io/n9ppq3\\_v1](https://doi.org/10.31234/osf.io/n9ppq3_v1)

논문 리스트(apa)

Im, J., Kim, H., Lee, J.-H., Park, H., Joh, H.-K., & Ahn, W.-Y. (2025). Dynamic Brain Network Changes Associated with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bioRxiv*.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5.09.13.676003v1>

Zoh, Y., Kim, S., Kim, H. Crockett, M. J., & Ahn, W.-Y. (2025). Decomposing the neurocomputational mechanisms of deontological moral preferences, *PsyArXiv*. [https://doi.org/10.31234/osf.io/4nzqr\\_v1](https://doi.org/10.31234/osf.io/4nzqr_v1)

Lee, E., Park, H., Lee, J.-H., Kim, H., Park, H., Joh, H.-K. & Ahn, W.-Y. (2025). The Role of Pavlovian Bias in Smoking Cessation Success and Neurocognitive Alterations During Nicotine Withdrawal, *bioRxiv*. <https://doi.org/10.1101/2025.11.18.688678>

Park, D., Hwang, S. H., Lee, K., Ryoo, Y., Kim, H. F., & Lee, S. H. (2025). Supramodal and cross-modal representations of working memory in higher-order cortex. *Nature Communications*, 16(1), 4497.

Kang, W., Kwon, M., & Lee, S. H. (2025). Neural systems for processing social relationship information along two principal dimensions. *Communications Biology*, 8(1), 1120.

전혜진&이훈진. (2025). 이익 및 장벽 모델에 기반한 성인 비자살적 자해의 이해: 자살적 자해와의 비교 및 빈도에 따른 기능 차이. *스트레스연구*, 33(2), 63-73.

Joo, Y. Y., Kim, B. G., Kim, G., et al. (2025). Polygenic architecture of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behaviors, and psychopathologies in children. *Nature Communications*, 16, Article 8467. <https://doi.org/10.1038/s41467-025-63312-6>

Lee, J., Park, J. J., Pak, M., Choi, S. Y., & Cha, J. (2025). A more comprehensive and reliable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s with generalized random forest for high-dimensional data: Validation and guidelines (p. 2025.10.28.685232). *bioRxiv*. <https://doi.org/10.1101/2025.10.28.685232>

Choi, S. Y., Lee, J., Park, J., Lee, E., Kim, B. G., Kim, G., ... & Cha, J. (in press). Individual Differences in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Childhood ADHD: Genetic, Neural, and Familial Contribu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Lee, J., Han, D. D., Oh, S. Y., & Cha, J. (2025). Awe is characterized as an ambivalent affect in the human behavior and cortex. *Communications Psychology*, 3(1), 123.

Bae, S., & Cha, J. (2025). CausalMamba: Scalable Conditional State Space Models for Neural Causal Inference. *arXiv preprint arXiv:2510.17318*. <https://arxiv.org/abs/2510.17318>

Bae, S., Azabou, M., Cha, J., & Richards, B. (2025). Decoding Dynamic Visual Experience from Calcium Imaging via Cell-Pattern-Aware SSL. *arXiv preprint arXiv:2510.18516*. <https://arxiv.org/abs/2510.18516>

Han, D. D., Lee, A. L., Lee, T., Gwon, Y., Lee, S., Lee, S., ... & Chung, C. K. (2025). DIVER-0: A Fully Channel Equivariant EEG Foundation Model. *arXiv preprint arXiv:2507.14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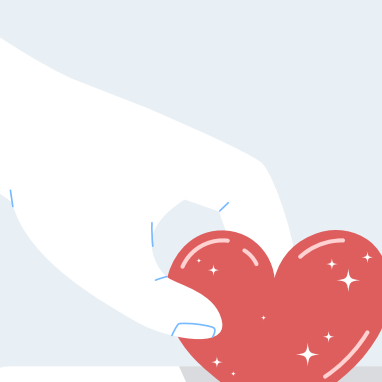
Lee, S. H., Chey, J., Choi, I., Youm, Y., & Cole, S. (2025). Positive social relations, loneliness, and immune system gene regul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549(1), 139-147. <https://doi.org/10.1111/nyas.15372>

Kim, Y., Ku, X., Kim, J.H. et al. Mitig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Lower-Class Backgrounds on Subjective Well-Being: The Role of Nonessentialist Views of Happiness. (2025).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6(80). <https://doi.org/10.1007/s10902-025-00909-0>

Lee, S. H., Kim, K., Gim, S., Lee, H., Choi, I., & Woo, C. W. (2025). Genetic Influences on Psychologic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ast Asians. *SSRN*. <https://dx.doi.org/10.2139/ssrn.5462916>

Baek, E. C., Shen, Y. L., Kim, H., Baldina, E., Chey, J., Youm, Y., & Parkinson, C. (In press). Having more friends is associated with greater sensitization to social exclusion: Neural and behavioral evidence. *Social Cognitive & Affective Neuroscience*.

Chin, M., Hahn, S., Kim, Y. S., Kwon, Y. H., Park, Y.-H., Choi, Y., Kim, G., Kim, Y., Lee, I., Yoon, H. J., & Bae, H. (2025). Explo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menopausal symptoms using a random forest model: A cross-sectional study. *Women's Health Nursing*, 31(3), 227-240. <https://doi.org/10.4069/whn.2025.08.12>



## 심쿵한 기부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발전기금 모금 안내

”심리학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 발전기금 기부안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1946년 창립 이래,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와 응용 연구에 앞장서며, 깊이 있는 학문적 유산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학과는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내며, 국내외적으로 심리학의 학문적 중요성을 확립해왔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정신 건강의 증진, 교육 방법의 혁신, 산업 및 조직의 수행과 포용성 향상 등, 심리학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의 미래 발전 방향은, 더욱 포괄적인 방법론과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 심리 과정과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현대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발달과 변화를 예측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심리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발전 기금을 모집하여 우리 학과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부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함께 인간의 더 나은 이해를 통해 밝은 미래를 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871.8004 | Fax : 02.872.4149

Email : snuf@snu.ac.kr

Web : www.snu.or.kr

08826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발전기금 모금 QR